

북스

어린이 책꽂이



▲꼬리 짚린 생쥐=참비 '좋은 어린이책' 대상 수상작으로 권영필씨의 창작동화이다. 아이들에게 익숙한 학교를 무대로, 꼬리가 없지만 약하거나 다르고 주눅 들지 않고 당당히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새로운 질서까지 만들어 내는 생쥐 '빠른 발'의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참비·8,900원)



▲천하무적 박치기왕=초등학교 5학년 인수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박치기왕'인 프로레슬러 김일이다. 술을 마시고 자신과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를 이기고 싶었기 때문. 그러나 김일이 안토니오 이노키와의 경기에서 지는 것을 보고 인수는 강한 것은 힘이 아니라 어떤 상대와도 도전하겠다는 용기임을 알게 된다. (웅진주니어·8,500원)



▲꽃밭=한국 아동문학의 아버지 고(故) 윤석중 작가의 동시 '꽃밭'을 모티브로 쓰고 그린 양증맞은 그림책. 여덟 줄짜리에 되지 않는 짧은 시를 예쁜 그림으로 승화시켜 강렬한 이미지를 안겨 준다. 가계본 상태로 불로타 국제아동도서전에 전시돼 세계적인 눈길을 사로잡았다. (파랑새·1만2,000원)



▲더 빨리 더 멀리 더 높이=교통과 운동 수단의 발달사를 한눈에 살필 수 있도록 했다. 자전거·자동차·비행기 같은 탈것의 발명에 대한 다양한 에피소드가 읽는 재미를 더하며, 증기기관의 원리나 로켓의 개념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과학학식도 곁들였다. (한겨레아일랜드·1만1,000원)



▲마이 스위트 데디 = 일본의 동화작가 카케노 우시오가 쓴 싱글 데디 가족의 유쾌한 이야기. 피 한 방울 안 섞인 25살의 아빠와 단둘이 사는 후키코 가족과 4인 가족의 평범한 다이어 가족이 이웃해 살면서 벌어지는 갖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행복은 평범한 형태의 삶이 아니어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말한다. (푸른숲주니어·9,000원)



▲하하의 마법과자 = '머리가 좋아지는 동화' 시리즈 중 자기 표현력 발달과 관련한 그림책.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을 무척 어려워하는 하하에게 어느 날 이런 걱정을 한 번에 해결해줄 마법 과자가 생겼다. 이후 하하는 친구들과 선생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 (아르블·9,500원)



▲도깨비도 이긴 딱뜨그르르 =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던 도깨비 이야기의 원형을 찾아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꾸민 옛날 도깨비 이야기 모음집이다. '날아다니는 빨간 도깨비 감투' 등 도깨비 이야기 가운데 재미있고 잘 알려진 열네 편의 이야기를 엮었다. (침도깨비·1만1,500원)

▲우리 엄마는 무릎팍 도사=민초 엄마는 하반신 장애 때문에 걸음걸이가 이상하다. 그런 엄마가 학교에 찾아온 것을 보고 친구들은 '무릎팍 도사'라고 놀리기 시작한다. 장애를 가진 엄마를 부끄러워하던 민초가 엄마의 사정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 가족의 사랑을 깨닫는 따뜻한 유쾌한 동화다. (우리책·8,800원)

조선왕조 토대 닦은 '8인의 킹메이커'

조선참모실록

박기현 지음



위대한 지도자는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유일무이한 조건은 아니다. 리더 혼자 이룰 수 있는 건 없다. 국가 시스템을 만들고 지도자의 판단을 돕는 유능한 참모들의 역할과 평범한 민초들의 희생이 함께 이루어질 때 그 국가는 탄탄한 토대 위에 모습을 드러낸다.

조선 왕조 역사 마찬가지로였다. 군주 중심의 강력한 왕권주의 국가이기는 했지만 외세의 침입과 열악한 여건 속에서 500년 역사를 지탱한 것은 몇몇 성군들 덕분이 아니었다.

'우리 역사를 바꾼 귀화 성씨', 'KBS 역사 스페셜' 등 대중 역사서를 써온 박기현씨가 펴낸 '조선참모실록-시대의 표준을 제시한 8인의 킹 메이커'는 조선 왕조의 토대를 닦은 참모들의 강인한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이다.

책에는 모두 8명의 인물이 등장한다. 이들은 모두 유배와 파면, 옥고 등 숱한 난관을 이겨내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며 시대의 지도자로 우뚝 선 인물들이다. 이들이 대표하는 리더십은 현재 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들이다.

책에서 퇴계 이황은 '물러섬의 리더십'을 보여준 인물로 평가된다. 벼슬보다는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닦아 선비의 모범을 보여준 청빈한 리더였던 그는 34세에 벼슬을 시작해 70세가 사망할 때까지 140여 직책을 임명되었지만 79번이나 사퇴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자리'를 차지하려하고, 또 그 자리에 올라서는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요점의 정치인들이 새겨들을 대목이

다. 임진왜란 당시 선조를 모시고 모진 풍파를 겪어오셨던 이황복은 어떤 난관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해학의 리더십'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는 위기가 올 때마다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 생긴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사화로 인한 멸문지화의 위기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던 이준경은 뛰어난 예지력과 통찰력으로 시대를 파악하고, 수많은 정적들도 감싸안으며 국가 발전에 함께 머리를 맞췄던 '관용의 리더십'을 발휘했다.

또 조선 최고의 실물경제 관료였던 김육은 민생을 외면하고 당리당략에만 몰두하는 정치인의 속성과는 무관한 인물이었다. 김육은 조선 후기 민생경제 최후의 보루가 대동법임을 믿고 대동법 시행에 목숨을 걸며 '집념의 리더십'을 발휘한다.

그밖에 시대의 격변기에 정면으로 대응, 쇄국을 버리고 개화의 깃발을 들었던 박구수에게서는 시대 흐름을 읽



이황이 학문을 성취하고 후학들을 키워낸 도산서원 전경. 원인은 이황 초상.

어낸 '변화 수용의 리더십'을 발견하며 을 보였던 맹사성에게서는 '은유의 리더십'을 이끌어낸다. (역사의 아침·1만 3,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가정독서모임' 현장 보고서

책으로 크는 아이들

백화현 지음



교육현장에서 독서운동을 주도해온 교사 백화현씨가 펴낸 '책으로 크는 아이들'은 아이들과 책을 함께 읽어온 7년간의 '가정독서모임 이야기'를 기록한 일종의 현장 보고서다.

부모로서 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아이에게 책을 주는 것이라고 믿는 저자는 집에서 하는 '가정독서모임'을 구상하게 됐고 자신의 아들과 그 친구들을 모아 모임을 꾸려 오고 있다.

책은 이 모임의 구성 배경과 성장 과정, 발전 방향 등을 다뤘다. 1장에서는 독서모임의 배경이라 할 수 있는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엄마로서의 고민과 바람을 풀어 놓았다. 2장에서는 2003~2004년에 이루어진 독서모임의 활동 내용을, 3장에서는 책을 읽고 떠난 여정을 소개했다. 그리고 4장에서는 2007~2009년까지 2기 독서모임의 활동을 담았다.

저자는 "우리 가정독서모임에서 진행해 온 프로그램을 일반 가정에서 그대로 실행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러한 모임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부모라면 적절히 변형하거나 새롭게 만들어 운영해 볼 것"을 권한다.

또 "한 가정에서 운영되기보다는 공공도서관이나 독서운동 시민단체, 그리고 학교에서 더욱 다양한 형태로 활발하게 운영됐으면 한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교육·1만3,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스승과 제자 능청스런 이야기

처음의 아해들

김종광 지음



능청스런 반어와 유쾌한 풍자의 대가 김종광씨가 신작 소설집 '처음의 아해들'을 출간했다. 이번 발표된 소설들은 '경향사'에, '안녕'과 '모내기 블루스' 등 단작에서 보여준 특유의 입담이 더 짙게 짙었다.

표제작 '처음의 아해들'은 지방 소도시의 스승과 제자들의 이야기로 전교교 교사와 그가 첫 담임을 맡았던 제자 열한 명이 모임에서 과거를 회상하고 현실을 돌아보는 이야기다.

제자들은 공부하라는 말도 잘 안 하고, 자율학습 빠져도 제대로 한 번 패지도 않았던 교사에게 이제 솔직히 "선생님 같은 참교육 담임을 안 만나고 개백정갈이 잡아주는 담임을 만났으면, 4년째는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원망 섞인 말을 한다. 또 '우아할 양귀비'는 일부러 키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와 씩이 튼 양귀비 때문에 경찰서에 끌려간 '음순네' 이야기다.

음순은 누가 경찰에 자신을 신고했는지 알아내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수지 상류 쪽 방갈로 파견을 두고 다녔던 '만나슈 퍼 김하루네' 등 마음에 걸리는 마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

이밖에 자식에게는 "흠 파먹고 살게 하고 싶지 않아서 죽을 뽕 싸가면서 공부시킨" 아버지와 "팬데 굴리는 삶"을 사는 아들 사 이를 그린 '내시경'을 비롯해 소시민의 다양한 삶을 그린 단편 9편을 담았다. (문학동네·1만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주홍글씨' 등 잊혀진 고전들

세계가 두 번 진행되길...

정혜윤 지음



정혜윤(CBS 라디오 PD)이 펴낸 독서기 '침대에 책'이나 작가들과의 인터뷰집 '그들은 한 권의 책에서 시작되었다'를 읽다 보면 우선 장트를 넘나드느라 그녀의 방대한 독서량에 놀란다. 그리고 다양한 책들을 하나의 주제로 엮어내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것에 또 한번 놀라게 된다.

그녀가 또 다른 독서기 '세계가 두 번 진행되길 원한다면'을 펴냈다. 이번엔 추측된 책들은 많은 사람들이 제목만 알고 있거나, 앞부분 읽다가 덮어두었거나 하는 이른바 '고전'이다.

저자는 고대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통해 헤르만 브로흐의 '몽유병자들의' 한 구절과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뱀과 백합', 푸슈킨의 시 '아리고 달콤한 희망에 속 쉬머'를 넘나들며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책에 관한 책'의 미덕 중 하나가 독자를 또 다른 독자로 이끄는 거라본 정혜윤의 이번 책 역시 그 소임을 다했다.

'위대한 개츠비', '폭풍의 언덕',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1984', '육방이라는 이름의 전차', '주홍글씨', '거미의 여인의 키스', '골짜기의 백합', '마담 보바리' 등 모두 14편의 소설을 다뤘다. 책 말미에는 그녀가 각각의 고전을 읽으면서 함께 접했던 60여편 목록이 함께 실렸다. (민음사·1만 3,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남성성기능강화제. 본 성기능 강화제는 최첨단, 왕라, 복분자, 구기자, 같은 20여 가지의 한약재로 제조하였으며 특히 왕라라는 허브의 일종으로 지방산강화작용을 하여 다미아나 혈관과 호르몬계의 노음이 된다는 임상실험결과가 있고 단백질을 저장하는 힘을 높여 근육을 강하게 해준다는 류큐나프린산을 주성분으로 하여 원활히 공급하므로써 당신의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주)한일 보음으로 1~5일까지 효과를 볼 수 있음. 010-7770-8138

아내가 개발한 큰놈. 인기 폭발 '양코'. 다이아몬드 大物. 현대 남성들의 최대 고민해결! 1577-4101 010-8952-4114

탑부동산투자경매. 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관천동 대림 e-편한세상 124동 맞은편(구 숭원대학 정문 앞). 전국 경매 물건 상시 상담 가능. 대표 전화: 0621368-0789